

브라질 축구, '마라카낭의 비극' 이제 그만

(브라질 축구 성지 마라카낭 스타디움)



남상현의 리우 리포트

1950년 월드컵 패배 충격에 4명 사망
1992년엔 스탠드 붕괴로 수십명 중상
독일과 결승...올림픽 첫 금 딸 지 주목

영국의 유명 작가 앤드루 스미스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역사문화 유적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스타디움을 꼽았다. 브라질의 축구영웅 펠레가 A매치에 데뷔하고, 개인통산 1000호 골을 뽑은 곳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현장으로 향할 때부터 '위시 리스트(Wish List)' 최상단에 마라카낭을 집어넣었다.

2년 전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때도 한국대표팀의 베이스캠프였던 이구아수(세계 최대 폭포로 유명)를 중심으로 아마존 남부 쿠이아바, 슈퍼모델 지젤 변천이 나고 자란 '미녀의 도시' 포르투 알레그리, 브라질의 허브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들을 방문했지만 당시 7경기가 펼쳐진 리우로 향할 기회는 없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브라질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축구장을 가보지 못했더니...

아쉬움이 남아있을까. 하루를 넘기는 긴 비행 끝에 리우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마라카낭이었다. 다만 방문 목적은 축구가 아니었다. 올림픽 개막식이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18일(한국시간) 브라질-온두라스의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축구 4강전이 펼쳐진 마라카낭 스타디움. 브라질은 6-0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브라질은 마라카낭에서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꿈에 부풀어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상현 기자

그래도 간절하던 통한다고 했다. 드디어 오지 축구 관전을 위해 마라카낭을 찾은 기회가 생겼다. 18일(한국시간) 벌어진 리우올림픽 남자축구 4강전, 개최국 브라질과 온두라스의 승부였다. 사실 아쉬움이 있다. 한국이 8강전에서 온두라스에 무릎을 꿇어 '브라질축구의 성지'에서 브라질과 자웅을 겨룰 소중한 기회를 놓친 탓이다. 우리가 이기든, 패하든 그 자체로도 엄청난 역사로 남았을 텐데...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마라카낭이 세계적으로도 유서 깊은 장소인 만큼 대회 개·폐막식과 남녀축구 준결승·결승을 열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라카낭은 브라질인들에게 행복만 주지는 않았다. '비극'으로 불린 고통의 시간도 많았다. 1950년 월드컵 결승을 개최하기 위해 1948년 착공된 마라카낭에서 우루과이와 예정(?)대로 결승에서 만났을 때, 10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 21만여명(추정)이 입장했다. 결과

는 1-2 역전패. 2명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고, 2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리고 수십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비극은 또 있었다. 1992년 축구경기도중 일부 스탠드의 붕괴로 3명이 죽고, 수십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발을 쿵쿵 구르는 응원인 브라질 팬들의 특징이다. 리우올림픽에서도 축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 경기장에서 발 구르기를 하는 팬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중이 한 곳에 쏠리면서 스탠드가 무너진 것이다. 이 사고로 규모가 크게 축소돼 7만 8000석 형태로 리모델링됐다.

2년 전 월드컵 때도 절망이 되풀이됐지만, 올림픽 정상은 없었다. 상파울루에서 벌어진 또 다른 4강전에서 독일이 나이지리아를 2-0으로 격파해 결승 매치업은 브라질-독일이 됐다. 브라질이 2년 전의 악몽을 딛고 고통으로 점철된 '마라카낭의 비극'을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리우올림픽 축구 일정을 보면 4강전과 결승은 마라카낭, 동메달 결정전은 미네이랑에서 치러진다. 브라질로선 악몽을 깰 절호의 찬스다. 그러나 17일이곳에서 벌어진 여자축구 4강전에선 브라질이 스웨덴에 승부차기로 무너졌다. 온두라스와 맞선 남자 '카나리아 군단'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18일 마라카낭으로 향하던 미디어 셔틀버스에선 '만일의 사태'를 걱정하는 외신기자들도 있었다. 브라질이 온두라스에 져서 폭동이 일어나면 늦은 밤까지 숙소로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동행한 브라질 기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그럴 일은 없다"고 다독였지만, 정작 자신들도 불편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다.

'다행히' 기우였다. 슈퍼스타 네이마르(24·FC바르셀로나)가 중심이 된 브라질은 맹공을 퍼부어 6-0 완승을 거두고 21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을 치르게 됐다. 네이마르는 전반 14초 만에 골망을 흔들며 역대 하계올림픽 최단시간 득점자가 된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 6번째 쐐기골까지 성공시켰다.

월드컵 통산 4회 우승을 달성한 브라질이지만, 올림픽 정상은 없었다. 상파울루에서 벌어진 또 다른 4강전에서 독일이 나이지리아를 2-0으로 격파해 결승 매치업은 브라질-독일이 됐다. 브라질이 2년 전의 악몽을 딛고 고통으로 점철된 '마라카낭의 비극'을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스포츠1부 기자 yoshike3@donga.com



해변의 여신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비치발리볼 독일여자대표팀 선수들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과 결승전에서 공을 잡기 위해 모래밭에 다이빙을 하고 있다. 독일은 사상 처음 여자비치발리볼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AP뉴시스

여자레슬링 4연패...전설이 된 이초 가오리

리우의 별

자유형 58kg급 결승 졸로보바 격파
뛰어난 기본기·기술...적수가 없어

일본레슬링의 '살아있는 전설' 이초 가오리(32·사진)가 사상 첫 올림픽 4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초는 18일(한국시간) 카리오카 아레나 2관에서 벌어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레슬링 여자 자유형 58kg급 결승에서 러시아의 바렐리아 코블로바 졸로보바를 3-1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2004년 아테네대회부터 2012년 런던대회까지 자유형 63kg급에서 3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던 가오리는 체급을 낮춰 도전한 이번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레슬링 역사상 첫 4연패의 주인공이 됐다.

2002세계선수권대회 63kg급에서 우승하며 세계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



시킨 이초는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48kg급에 출전한 친언니 이초 치하루(은메달)와 동반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 베이징 올림픽 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2010세계선수권(금메달)을 통해 복귀한 뒤 여전히 세계 최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워낙 기본기가 탄탄하고 기술이 뛰어나 마땅히 적수를 찾기 힘들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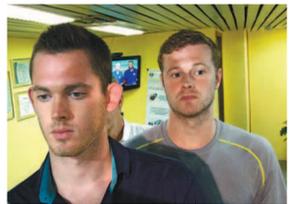
일본은 이초 외에도 69kg급 도쇼 사라(21), 48kg급 도사카 에리(22)까지 정상에 올라 이날 하루 동안 여자레슬링 3개 종목의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한국레슬링대표팀 총감독을 지낸 전혜섭 한 국제대 교수는 "일본은 서너 살부터 레슬링을 시작해 기본기가 탄탄하고, 고난도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미국수영선수들 강도 사고는 거짓말?

브라질 법원, 출국금지 후 재조사

브라질 법원이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 중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한 미국수영선수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도 피해를 주장한 4명 중 라이언 록티와 제임스 페이건은 이미 미국으로 돌아갔고, 군나르 벤츠와 잭 콩거는 브라질에 남아있다. 벤츠와 콩거는 출국 직전 브라질 당국의 제지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18일(한국시간) "브라질 법원이 미국수영선수들의 증언에 대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들 4명은 14일 프랑스수영대표팀 숙소에서 열린 파티에 다녀오다 택시에서 경찰을 가장한 강도를 만나 돈과 지갑 등 소지품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록티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경찰 배지를 단 사람들이 택시를 세워 우리 모두가 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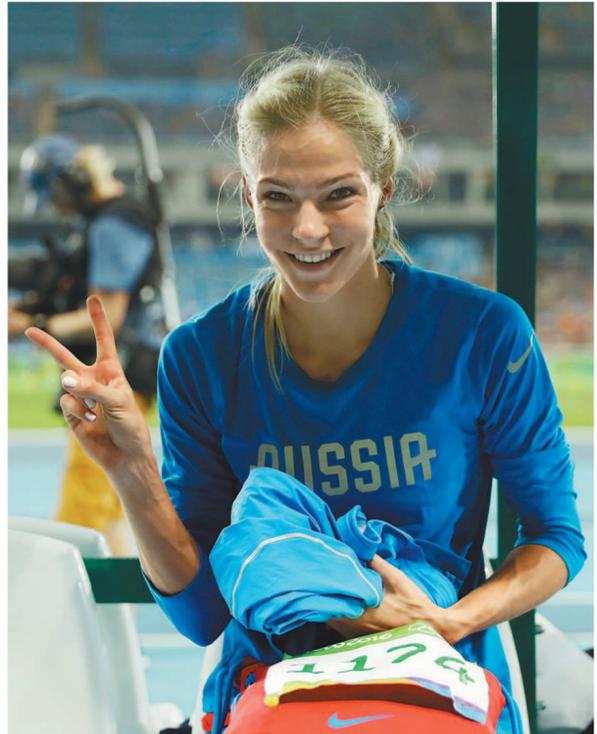
미국 수영선수 군나르 벤츠(왼쪽)와 잭 콩거가 18일 오전(현지시간) 리우국제공항에 있는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AP뉴시스

서 내렸다. 그 중 한 명은 내 이마에 총을 겨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브라질 법원은 선수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CCTV 등 관련 영상을 확인한 결과 선수들의 모습이 강도를 당했다고 보기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찰을 가장한 강도를 만나 돈과 지갑 등 소지품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록티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경찰 배지를 단 사람들이 택시를 세워 우리 모두가 차에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연예 기자가 뽑은 올림픽 스타 '트랙의 바비인형' 다리야 클리시나



금발의 긴 머리칼을 지닌 미녀를 흔히 바비인형에 비유한다. 러시아의 여자 멀리뛰기 다리야 클리시나(25)가 딱 그렇다. 180cm의 큰 키와 탄탄한 몸매, 긴 다리로 트랙을 수놓으며 '육상 요정' '트랙의 바비인형'으로 불린다. 자칭 '요정'을 리우에서 못 볼 뻔했다. 국가적인 도핑 조작으로 러시아의 육상 종목 출전이 금지됐지만, 클리시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를 통해 무혐의를 증명했다. 예선에서 6m64를 기록해 전체 8위를 기록한 클리시나는 18일 상위 12명이 출전한 결선 무대에 출전 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SNS 속에 비친 리우



◀'수영황제'도 하나뿐인 2세 앞에서 다정한 아빠에 불과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마이클 펠프스(31·미국).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펠프스는 집으로 돌아가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그는 18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인, 아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올렸다. 펠프스는 "집에 돌아오는 일 만한 것은 없다"며 "훌륭한 방법으로 은퇴 첫날을 보내는 중"이라고 평범한 가정으로서의 일상을 소개했다. 올림픽 수영장만 큰 넓은 무대는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집 앞 풀장은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다. 사진출처 | 마이클 펠프스 인스타그램

IOC 집행위원이 암포 팔다 적발

유럽올림픽위원회(EOC)와 아일랜드 올림픽위원회(OCI) 수장을 겸하는 패트리 히키(71·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이 17일(한국시간)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리우 현지에서 1000여장의 암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일제히 "히키가 올림픽 입장권을 제값 이상으로 판매하려다 적발돼 브라질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 히키가 머물던 호텔방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는 샤워기용을 입은 채 붙잡혔다. 그러나 히키는 체포 직후 몸에 이상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지 경찰은 히키의 소유로 추정되는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키는 1989년부터 OCI 위원장을 맡는 등 유럽 체육계에서 거물로 통하는 인물이다. 히키가 속한 세 위원회는 그



의 이름값만큼이나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IOC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그가 결백하리라고 믿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OCI는 한 발 더 나아가 "히키가 체포된 뒤부터 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고 발표했다. 히키의 긴급체포는 브라질 경찰이 한 티켓 판매사의 압포 고리를 수사하면서 이뤄졌다. 2012런던올림픽과 2014소치동계올림픽의 공식 티켓 판매사였던 THG스포츠 케빈 제임스 펠린(아일랜드) 이사가 암포 판매 적발로 체포되면서 히키의 연루 사실이 함께 불거졌고, 결국 히키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히키의 혐의는 추가 수사를 통해 상세히 드러날 전망이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리우 안테나

우사인 볼트, 男 육상 200m 결승 안착
올 시즌 개인최고기록으로 육상 남자 200m 결승에 오른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이 부문 최초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다. 볼트는 18일(한국시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200m 준결승 2조에서 19초78로 1위를 차지해 결승에 올랐다. 볼트의 라이벌 저스틴 게이틀린(34·미국)은 20초13으로 3조 3위에 그쳐 탈락했다. 이미 100m에서 올림픽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한 볼트는 3연속 올림픽 3관왕(100m·200m·400m 계주)을 겨냥

하고 있다. 남자 200m 결승은 19일 오전 10시30분 치러진다. 남자 400m 계주 결승은 20일 오전 10시35분으로 예정돼 있다.

중국 탁구, 올림픽 3연속 전 종목 우승
중국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탁구 전 세부종목을 석권했다. 중국은 18일 리우센트루 3관에서 벌어진 탁구 남자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여자단체전과 남녀단식에서도 우승한 중국은 4종목을 모두 휩쓸며 단체전이 도입된 2008베이징올림픽부터 3연속 전 종목 우승을 달성했다.

편지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